

문화포럼

# 부안군수 대중국 홍보세일즈 펼쳐

### 중국 주광주총영사관 초청 교류행사 참석 주요 관광지·특산물 집중 홍보



유진섭 정읍시의회의장

장애인에 김장박스 나눔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저소득 장애인들을 살펴보고 위로 격려하기 위하여 사랑의 김장박스 나눔 배달 활동에 참여했다.

제가 장애인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박스 나눔 배달 행사는 정읍장애인 복지관 주관으로 관내 기업체(동원페이퍼, 참좋은병원, 한국대 등)의 도움을 받아 김장을 담궈 재가 장애인 50가정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이다.

유진섭 의장은 11월 30일 오전10시부터 장애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김장을 담궈 김장박스를 재가장애인 집에 배달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여 함께했다.

유진섭 의장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이처럼 도움을 주는 지역기업체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더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밝은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정읍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시의회(유진섭의장)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월드비전 도시락 나눔의 행사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도서관 다문화가정과 행사

김제시도서관은 다문화 가족을 초청하여 2016년의 아쉬움을 달래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다짐하는 '도서관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송구영신' 행사를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 5층 문화교실에서 진행한다.

이 행사는 고향을 떠나 낯선 타국 땅에 정착하는 결혼 이민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2011년부터 6년째 치러지고 있다. 다문화 가정 15가족을 초청하여 연하장을 직접 만들어 가족사진과 함께 국제우편으로 고향에 소식을 전한다 또 파스타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시간이 있어 즐거운 토요일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시도서관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자료실을 따로 설치하여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 등 10여 개국 1,5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하는 등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김완수 시립도서관장은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따뜻한 관심과 나눔의 훈훈한 정을 느끼고 다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서관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어촌공 정읍, 연탄나누기 봉사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직원10여명이 지난달 29일 정읍시 상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지적장애인의 나눔의 집(센터장 박춘이)과 정읍시 상동에 거주하는 장애인 김순영씨, 농성동 강행자 집을 방문하여 연탄 각각 500장씩을 전달하였으며,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한편 박춘이 센터장과 장애인 김순영씨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정읍지사와 직원분들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종규 부안군수가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과 화베이지구 텐진시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김종규 부안군수와 김대식 전남도 국제관계대사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 주요 관광지와 우수 농특산물의 대중국 홍보세일즈를 펼쳤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일까지 중국 주 광주총영사관 초청으로 진행 중인 호남지역 기초단체장 중국 교류행사에 참석해 위도와 채석강 등 주요 관광지를 설명하고 부안행주와 부안 김, 건해삼 삼계탕 등 자연이 준 안전식품 거러인 부안의 우수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해 산시성 관계자 및 민간기업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우수 농특산물을 중점 홍보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30일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에서 열린 교류행사에서 위도와 채석강 등 주요 관광지를 언급하면서 중국과 부안의 역사적 우의를 강조했으며 부안 차이나교육문화특구 조성 및 부안중 국문화원 개원 등 부안 속의 중국을 널리 홍보했다.

이 자리에 부안행주와 부안 김, 건해삼 삼계탕 등 자연이 준 안전식품 거러인 부안의 우수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해 산시성 관계자 및 민간기업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1일 김군수는 중국 화베이지구 텐진시로 이동해 교류행사를 하고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우리 부안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국문화원을 개원하고 부안 차이나교육문화특구 조성 등 중국인이 머무르고 싶은 명품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 희망의 땅 새만금과 2023 세계잡버리 유치 추진 등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축복의 땅 부안에 꼭 한번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보건소는 지난달 29일 전라북도와 전북지역암센터 주관으로 열린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 정읍시보건소, 국가 암 관리 우수기관 표창

검진 안내문 발송·1:1 전화 안내 등 수검률 높이기

정읍시보건소는 지난달 29일 전라북도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북도 내 14개 시군을 임예방 교육과 캠페인 활동 검진 수검률(국가암 생애 전환기 의료급여 수검률,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우수사례 3개 분야 7개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했다. 보건소는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검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1:1 전화 안내와 핸드폰 문자 서비스를 실시했고 각종 행사 시 지역행사와 연계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듬해 불만환 6세 이상의 고령 인구수가 많고 의료기관이

먼 거리에 있는 읍면의 경우 검진을 기피하는 집에 주막, 의료기관과 연계해 주기적인 읍면지역 차량 출장검진을 통해 검진 수검률을 높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함은 물론 앞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의회 예결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본격 심의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래·사진)는 오늘부터 13일까지 9일 간 부안군이 제출한 2017년도 본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박병래 예결위원장 "쌀값폭락, 어획량 감소 등으로 농어민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

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2017년도 예산안 심의는 의원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이번 예산 심의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건전하고 내실

있는 부안군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의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적극 삭감 조정하고 필수경비 부족분 등 시급한 사항만 반영하여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 시에 확정 의결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기자

## 금구 대울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김제시는 지난달 30일 '금구 대울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김제시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금구 대울유원지를 지역의 미래를 담은 세계적 레저·문화·휴양복합 거점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조성계획 추진현황, 대상지역 분석 도입시설 선정, 지구별 최종 구성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금구 대울유원지는 1973년 9월 5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되어 1980년 6월 18일 조성계획을 최초 수립하였으며, 2010년 1월 22일에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유원지 활성화를 모색해 왔다. 현재 음식점 및 골프장이 운영중에 있고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반영된 캠프장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족 중심의 체류형 이용객을 위한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계

획에 있다. 대울유원지는 대울저수지를 중심으로 완만한 산림 구릉 지형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호남고속도로 및 국도호선과 인접하여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여 보전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번 대울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방향을 통하여 새만금과 더불어 김제 동부생활권의 차세대 성장을 선도하면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은 "향후 김제 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즐겨찾는 명소가 대울유원지를 개발하여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김제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한해를 뒤돌아 보는 시간을 찾아서

끝이 아닌 시작을 위한 12월 지평선아카데미

본격적이 겨울이 시작되어 쌀쌀한 기운이 만연 하지만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분주한 시간으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의 시간을 갖고자 12월에는 '한해를 뒤돌아 보는 시간을 찾아서'라는 테마로 지평선아카데미가 삶의 활력소 같은 강연 내용으로 펼쳐진다.

지평선아카데미는 12월의 첫날 1일(491회) 양소영 변호사를 초청하여 '황혼에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은퇴창업, 금융사기, 중대질병 발생 상속 증여 등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과 황혼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준비했다.

8일(제492회)에는 강성수 인성코리아 교육위원을 초청, "공동체 리더십 방향"이라는 주제로 김제지역 리더로서의 의미와 가치 고찰 및 비전에 대한 강연을 한다. 이날은 김제시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주민자치 기반을 다지고 자치역량을 한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15일(제493회)에는 풍수전문가 이상인박사를 초청 '복을 부르는 생활 풍수'라는 주제로 사랑과 행운, 돈과 건강 등 사람들의 관심사와 현대의 풍수를 함께 소개하여 생활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테리이 풍수 등에 대한 강연을 한다. 또한 이날은 "황산면 아카데미 체험의 날"로 황산면 주민자치센터



체조교실의 다양한 생활체조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2016년 마지막 강연인 22일(494회)에는 이한 가베라가수를 초청 '힐링콘서트-인생의 이름을 찾아라'란 주제로 사랑이 담긴 가족의 이야기와 노래와 웃음, 눈물의 감동이 함께 어우러진 인생의 의미, 가족의 의미를 스토리텔링해 표현하는 독특한 콘서트형 강연으로 마무리한다.

양은연 인제양성과정은 "시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도록 준비한 아카데미 강연과 함께 한해를 잘 마무리 했으면 한다."라며 매주 목요일 지평선아카데미를 찾아와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단 운영

내년 1월 말까지 운영, 3억여원 예산 절감 기대

정읍시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동절기에 한하여 2017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을 운영한다.

시는 내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과소 및 읍면, 동 시설(토목)직 공무원으로 자체 합동 설계단을 구성하여 기간 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체 합동 설계단은 건설과장을 총괄 단장으로 3개반 15명으로 편성된다.

이곳에서는 내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및 읍, 면, 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총 300여건 30억원 규모에 대한 자체 설계를 맡게 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현지 측량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월 중 일제히 공사에 발주, 착공해 5월 중으로 사업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조기재정 집행과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까지 9년 동안 자체 합동 설계단을 운영하면서 규모 주민숙원사업 3천300건 400억원에 대한 자체 설계를 통해 31억원(용역비)의 예산을 절감했다.

김제시 시장은 "합동 설계단 운영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자체 설계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김제 요촌동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홍보

다세대주택·원룸가 대상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송해숙)에서는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있는 다세대주택 및 원룸가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경고문을 다세대 주택 및 원룸가 90여개 입구에 일일이 부착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주민들의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경고문 내용으로는 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과 더불어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및 폐 가전제품 무상수거 안내를 통해 주민 모두가 환경지킴이가 되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데에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했으며, 지난 29일 진행된 요촌동 통장회의(통장협의회장 김만중)에서는 쓰레기 무단투



기 금지 경고문 부착 결과 보고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집주인 환경정비 참여 등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송해숙 요촌동장은 "경고문 부착뿐 아니라 앞으로 깨끗한 요촌동 만들기 위해 앞장서주실 것,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쓰레기 규격분류 배출을 생활화하고 애착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요촌동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